

초대교회 세례준비자(Catechumen) 교육과 한국교회에의 함의점¹

정두성
(고려신학대학원)

[초록]

초대교회의 세례준비 교육은 교회교육의 핵심이었다. 교회는 세례준비 교육을 통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게 했다. 그 과정은 길었고 또 엄격했다. 이 교육의 과정을 통해 교회는 개종자들의 삶과 가치관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시켰다. 이러한 훈련 위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그 자체로 기독교의 변증이었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는 풍성했다. 반면에 초대교회는 다음세대 교육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성경과 초대교회의 모습의 회복을 통해 교회를 개혁하려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전락한 사순절을 폐지하면서 초대교회 사순절의 교육적인 요소를 살려내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세례준비자 교육이 현대 한국교회 신앙교육에

논문투고일 2018.01.19. / 심사완료일 2018.02.20. / 게재확정일 2018.03.05.

¹ 본고는 개혁주의학술원이 2018년 1월 15일에 주최한 제6회 신진학자포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을 밝힌다.

주는 함의점은 충분히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세례준비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삶을 통해 가르쳐내야 한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바로 가르쳐 성도들이 진정한 천국잔치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신자와 학습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각인시켜야 한다. 유아세례를 받은 다음세대 성도들을 위해 가정신앙교육이 강화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시 한번 사순절의 교육적인 요소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세례, 초대교회, 세례후보자, 세례적임자, 교회, 교회교육

1. 들어가는 말

초대교회 신앙교육의 주 대상은 세례를 준비하는 새신자들이었다. 반면에 종교개혁시기는 세례를 받았으나 성경과 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그 교육의 주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주 대상은 누구인가? 현재 한국교회는 이러한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정착했고, 성장했고, 발전했다. 이는 한국 교회는 어떤 특정 대상을 핵심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는 단계를 넘어 새신자를 비롯하여 전 성도들과 목회자까지 스스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재의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돌아보고 참고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역사일 것이다. 각 시대와 문화에 따라 교회가 취했던 행동들과 그에 따른 반응들을 살펴봄으로 현재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장로교 중심의 신앙교육 연구에 있어서 종교개혁시기의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인 뿌리인 초대교회의 신앙교육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비교적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리교육이 교회교육의 핵심이자 신앙교육 그 자체였던 초대교회의 세례자 중심의 교회교육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 한국교회의 신앙교육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또한 한국 교회의 신앙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함의점을 찾아보는 것은 또 하나의 유의한 시도이자 접근이라 생각된다.

II. 세례중심의 초대교회 교회교육

최초의 교회에서 교육의 대상은 크게 두 부류였다.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었다. 교회라는 신생 공동체를 형성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 문화적 배경 때문에 잦은 마찰을 초래했다.² 이들의 마찰은 인종적인 문제를 넘어 기독교 교리에 혼동을 초래하기까지 했다.³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 두 부류를 하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기위해 고민을 해야 했고,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교육 방법을 적용하게 되었다.⁴ 유대인 개종자들에게는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의 성취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이방 문화속에서 삶이 굳어져 버린 그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려 할 때 교회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완전히 벗어 버릴 것을 요구했다.⁵ 이러한

2 윌리엄 핸드릭슨, 『갈라디아서』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5), 210.

3 김성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5), 294-96.

4 L. D. Folkemer, "A Study of the Catechumenate," in Everett F., ed., *Conversion, Catechumenate, and Baptism in the Early Church* (New York & London: Gerland Publishing, Inc., 1993), 244.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세례를 통해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교육의 중심은 항상 세례였다.

현존하는 기록으로 볼 때 초대교회에서 세례준비 교육과정에 대한 초기 언급은 디다케(The Didache)와 사도전승(The Apostolic Constitutions)에 나타난다. 이 문서들은 1세기 말부터 2세기까지 세례중심의 교회교육이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생활에 초점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즉, 성경과 교리의 지식적인 전달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데 더욱 무게를 두었다는 것이다.⁶ 그러나 3세기부터는 이전까지의 실천중심의 교회교육에 지식적인 교리학습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이방인 개종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세례의 개념에 대한 오해와 그에 따른 교회 내의 혼동이었다. 기독교로 개종은 원하지만 그 이전의 세속적 삶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자들 중에는 세례를 연기하는 이들이 생겨났다.⁷ 이와 반대로 세례의식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죽음 직전의 가족을 위한 세례를 요구하는 이들은 물론 심지어 죽은 이들을 위한 세례를 요구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⁸ 결국 세례를 중시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적용들은 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3세기 초대교회는 교회 내에서 나타난 교리적인 혼동을 피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5 헤르만바빙크, 『개혁교의학』,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4권, 159.

6 Justin Martyr, "The First Apology," in A. Roberts & J. Donaldson, ed., *Ante-Nicene Fathers*, Vol. 1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183.

7 Chrysostom, "Baptismal Instructions," in Harkins, P. W., ed., *Ancient Christian Writers*, Vol. 31 (New York: Newman Press, 1963), 132-35; 헤르만바빙크, 『개혁교의학』, 4권, 160-61.

8 Everett Ferguson, "Inscription and the Origin of Infant Baptism", E. Ferguson, ed., *Conversion, Catechumenate and Baptism in the Early Church*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3), 391-400.

초대교회에서 성인 개종자들에게 세례가 교육의 중심이 된 것처럼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는 유아세례가 그 위치를 차지했다. 초대교회는 아직 유아세례의 개념에 대해 합의된 교의를 가지지 못하고 각 교회 지도자들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실행되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유아세례는 2세기 후반부터 실질적으로 널리 실행되었다는 점이다.⁹ 초대교회가 이렇게 유아세례에 관심을 가진 것은 세례를 통한 교인등록 그 이상의 신학적 의미가 있었는데, 그 첫번째 근거가 ‘원죄의식’¹⁰이고 나머지 하나는 ‘종말론적 신앙’¹¹이었다. 여기서 전자는 어린이들도 어른들과 같이 원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c. 150 - c. 215)는 ‘어떠한 사람도 비록 그 인생이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 할 지라도 죄로부터 절대 자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¹² 또한 아테네의 아타나고라스(Athenagoras of Athens, c. 133 - c. 190)가 ‘어린이로 죽은 이들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른들과 같이 부활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어린이들도 세례를 통해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¹³라고 말한 것은 초대교회의 ‘종말론적 신앙’이 유아세례의 개념 속에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 c. 155 - c. 240)는 세례가 구원 받은 자의 증표는 될 수는 있지만, 구원의 필수요소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유아세례

9 Ferguson, “Inscription and the Origin of Infant Baptism,” 391; Irenaeus, “Against Heresies,” in A. Roberts & J. Donaldson, ed., *Ante-Nicene Fathers*, Vol.1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391; Cyprian, “The Epistles of Cyprian,” chapter 58:2-6, in *Ante-Nicene Fathers*, Vol. 5, Roberts, A & Donaldson, J., eds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353-54

10 K. Aland, *Did the Early Church Baptize Infant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3), 103.

11 Ferguson, “Inscription and the Origin of Infant Baptism,” 391.

12 Clement of Alexandria, “The Stromata, or Miscellanies,” in *Ante-Nicene Fathers*, Vol. 2, 428.

13 Athenagora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chapter 14, in *Ante-Nicene Fathers*, Vol. 2, Roberts, A & Donaldson, J., eds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156.

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 더욱 유익함을 주장했다.¹⁴

초대교회는 분명 세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회교육(catechism) 시스템을 구축했고 실행했다. 이는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순결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뿐 아니라, 기독교 교리체계를 정리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례 중심의 교회교육 시스템에 한 가지 약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초대교회의 유아세례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대교회는 분명 교회 내 유아세례 출신의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의 교육이 성인 새신자들을 위한 세례준비교육처럼 체계적이거나 지속적으로 교회내에서 실행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은 세례준비자들이나 세례적임자들과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¹⁵ 즉, 유아세례를 받은 이들은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어느 곳이나 마음껏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적 책임은 교회 공동체 보다는 주로 각 가정의 부모에게 부여되었다. 물론 이는 초대교회가 성경에 기초하여 부모에게 자녀 신앙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맡기는 바람직한 전통으로도 볼 수도 있다.¹⁶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유아세례자들을 위한 별도의 구별된 교육없이 부모의 책임으로 부여된 이러한 학습선택의 자유는 오히려 기독교 학습의 태만을 초래하고 말았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유아세례자 관리는 결국 교회교육의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어 늘어

¹⁴ Tertullian, "On Baptism," chapter 16, in *Ante-Nicene Fathers*, Vol. 3, 677-78.

¹⁵ Edwin H. Gifford, "The Catechetical Lectures of S. Cyril," 6.

¹⁶ Clement of Rome (late first century), "The First Epistle of Clement," chapter 21, in *Ante-Nicene Fathers*, Vol. 9, Roberts, A & Donaldson, J., eds.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236; Hermas (early to mid second century), "The Pastor of Hermas," in Roberts, A. & Donaldson, J., ed., *Ante-Nicene Fathers*, Vol.2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10; Lactantius, "The Divine Institutes," Book 6, chapter 19, in *Ante-Nicene Fathers*, Vol. 7, Roberts, A & Donaldson, J., eds.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185.

나는 유아세례자들에 비해 이방인 개종자들이 줄어들면서 체계적이었던 교회교육(Catechism)이 침체의 길로 접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III. 초대교회 교인등록과 세례준비자 교육

1. 초대교회 세례준비자 과정 등록절차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세례는 즉각적인 세례였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의 증표인 세례를 주었으며, 세례를 받은 이들은 그 순간부터 바로 교회사역에 동참했다.¹⁷ 그러나 이방인 개종자들의 숫자가 늘어가면서 2세기 후반부터 초대교회는 즉각적인 세례보다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이는 기독교 공동체에 적합한 구성원을 선별하며 기독교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교회 내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었다.¹⁸ 초대교회가 세례준비과정을 통해 가장 많이 고려하고 강조한 것은 새신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삶이 증명되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삶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가졌다.¹⁹ 초대교회는 새신자의 변화된 삶을 그들의 신앙고백과 함께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으로 요구한 것이다. 초대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엄격한 세례준비과정 등록절차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교회는 세례준비자로 등록하려는 자들의 믿음의 동기,²⁰

17 L. D. Folkemer, "A Study of the Catechumenate," 244; 앤서니 후크마, 『개혁주의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169.

18 L. Duchesne, *Christian Worship: Its Origin and Evolution* (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1912), 292.

19 Origen, "Origen against Celsus," in Roberts, A & Donaldson, J., ed., *Ante-Nicene Fathers*, Vol. 4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20 Hippolytus, *Apostolic Tradition*, Harold W. Attridge, ed., 82-83; Augustine, "The

생활상태,²¹ 직업²²을 미리 점검했고, 이 세가지 점검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자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세례준비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엄격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례준비자(Catechumens)가 되면 2-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변화된 삶을 증명하고, 이후 다시 한번 점검을 거쳐 사순절 기간 동안 세례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세례적임자(Petitioners) 교육을 성실히 수료하고 나면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교육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각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례 직후 일주일간 세례 후 교육이 행해졌다. 이렇게 형성된 세례중심의 새신자 교육은 3-4세기에 이르러서는 세례준비과정의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²³

IV. 세례후보자 (Catechumens)

세례후보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150-215)²⁴와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 160-225)²⁵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 교회에

Catechising of The Uninstructed,” 288.

21 지원자가 자유인인지 노예인지,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지, 귀신들렸는지 등. 참고 Hippolytus, *Apostolic Tradition*, 15.

22 비윤리적인 직업, 미신적인 일을 다루는 일 등이 주로 금지의 대상이 되었다. 참고 Hippolytus, *Apostolic Tradition*, Harold W. Attridge, ed., 87-93.

23 Lawrence D. Folkemer, “A Study of the Catechumenate,” 244.

24 Michel Dujarer, *A History of the Catechumenate. The First Six Centuries* (New York: Sadlier, 1979), 41.

25 Cf. Tertullian, “De Corona,” chapter 2, in *Ante-Nicene Fathers*, Vol. 3, 94; “On Prescription Against Heretics,” chapter 41, Michel Dujarer, *A History of the Catechumenate. The First Six Centuries*, 263; “Against Marcion,” chapter 7, Michel Dujarer, *A History of the Catechumenate. The First Six Centuries*, 443.

서 정규교육을 받는 이들'이라는 뜻으로 이들을 처음으로 세례후보자라고 불렀다고 알려져 있다.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 160-225)에게 세례후보자들은 교회 내에서 신자와 함께 있고 신자들과 같이 행동하고 기도하는 이들이기에 비록 세례를 받지 않아 정식으로 교인명부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이미 교회의 주요 구성원이었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다.²⁶ 반면에 로마의 히폴리투스(Hippolytus, 170-235)는 '세례후보자들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며, 그들의 입맞춤이 아직 순결하지 않기에 교회 내에서 평화의 입맞춤에는 참여할 수 없다'²⁷는 식으로 이들을 성도들과 엄격히 구분하였다. 키프리아누스(Cyprian, 200-258)는 '세례후보자들도 하나님을 대항하는(against)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성도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생활에서 보여야 한다. 즉, 세례후보자들도 일상 생활 가운데서 더 이상 범죄에 빠져서는 안된다'²⁸고 말하면서 세례후보자들도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할 것을 권면했다. 이후 4-5세기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키릴로스(Cyril of Jerusalem, 313-386)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354-430)는 세례후보자들도 세례 받은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면서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²⁹

1. 세례후보자 교육과정과 내용 (Curriculum for Catechumens)

초대교회는 세례후보자 교육을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²⁶ Tertullian, "The Prescription against Heretics," in Roberts, A & Donaldson, J., ed., *Ante-Nicene Fathers*, Vol. 3.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263.

²⁷ Hippolytus, *Apostolic Tradition*, Harold W. Attridge,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100-03.

²⁸ Cyprian, "The Treaties of Cyprian," in Roberts, A & Donaldson, J., ed., *Ante-Nicene Fathers*, Vol. 5.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554.

²⁹ Lawrence D. Folkemer, "A Study of the Catechumenate," in Everett F., ed., *Conversion, Catechumenate, and Baptism in the Early Church* (New York & London: Gerland Publishing, Inc., 1993), 287.

교육방법으로 절대 여기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과정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³⁰ 처음에는 각 교회의 상황과 교리교사(Catechists)의 주관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서서히 2-3년의 교육기간으로 정착해 갔다.³¹ 히폴리투스도 세례후보자들에게 3년을 교육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후보자들의 교육 기간을 2-3년이나 필요하다고 여긴 것은 새신자들이 죄, 이단, 배교하는 행위³²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후 세례를 주기 위함이었다.³³ 즉, 초대교회는 새신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다짐하고 나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이 변할 뿐 아니라, 어떠한 외부적인 박해에서도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2-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리스도인화 되는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한 것이지 만일 누구라도 충분히 신앙이 성숙되었음을 증명한다면 그는 더욱 짧은 기간 안에 과정을 마치고 다음 과정으로 옮겨 갈 수 있었다. 이는 초대교회가 세례 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를 교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³⁴ 테르툴리아누스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이 분명히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긴급하게 세례를 주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³⁵

그러면 2-3년의 기간 동안 초대교회가 세례준비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들은 언제 모여서 교육을 받았으며,

³⁰ "Constitutions of the Holy Apostles," in Roberts, A & Donaldson, J., ed., *Ante-Nicene Fathers*, Vol. 7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457.

³¹ Edwin H. Gifford, "The Catechetical Lectures of S. Cyril," 15-16.

³² J. L. Gonzalez, *The Early Church to the Dawn of the Reformation*, 148-51.

³³ Clinton E. Arnold, "Early Church Catechesis and New Christian's Classes in Contemporary Evangelism," in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Vol. 47, No.1 (March 2004), 44.

³⁴ Hippolytus, *Apostolic Tradition*, Harold W. Attridge, ed., 96-98.

³⁵ Tertullian, "On Repentance," in Roberts, A & Donaldson, J., ed., *Ante-Nicene Fathers*, Vol. 3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662.

누가 이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2-3년의 기간에 대한 강조와는 대조적으로 초대교회는 세례준비자들만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 시간을 배려하지 않았다. 이들의 교육은 예배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전교인 대상의 교리강좌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매주 참여하는 예배와 교리강좌를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는 훈련을 했다. 전교인 대상의 교리강좌 이후에는 보통 기도회 모임을 갖는데 이때 세례후보자들은 성도들과 구별되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거룩한 입맞춤(holy kiss)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대신 이들에게는 교회지도자들의 축복의 안수가 행해졌다.³⁶

초대교회의 세례후보자 교육 과정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교사로서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의 역할에서 교사로 섬길 수 있었는데, 그 첫째는 정식 교리교사(Catechists)로서 교리강좌 시간에 강의를 할 자격을 부여 받은 자들이고, 둘째는 세례후보자들의 멘토가 되어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성실히 돕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었다.³⁷ 특히,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자발적 참여 이상의 의무가 부여되기도 했는데, 크리소스토무스(Chrysostom)는 전도자가 세례후보자의 멘토로서 그 책임을 소홀히 할 때는 교회 차원에서 치리(discipline)할 필요가 있다고 까지 했다.³⁸

예배 후 이어지는 전교인 대상의 교리강좌에서 가르친 내용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에서 행해진 세례준비자 과정의 교육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시대별로 정리하면 세례준비자 과정이 생겨난 초기에는 지식적인 교리보다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을 더욱 많이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많이 사용되었던 교재인 디다케(Didache)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³⁹ 또한

36 Hippolytus, *Apostolic Tradition*, Harold W. Attridge, ed., 100-03.

37 Paul W. Harkins, "St. John Chrysostom: Baptismal Instruction", in *Ancient Christian Writers*, vol. 31 (New York: Newman Press, 1963), 220.

38 Chrysostom, "Baptismal Instructions," in Harkins, P. W., ed., *Ancient Christian Writers*, Vol. 31 (New York: Newman Press, 1963), 48-49.

39 "The Didache" in Frnacis X. Glimm, trans., *The Apostolic Fathers*, Vol. 1, 171-75.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Apostolic Tradition)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많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3세기를 지나 4세기로 넘어가면서 지식적인 기독교 교리도 함께 강조되어 교리와 윤리의 조화로운 교육이 시작되는 듯 했지만, 4세기 중반을 넘어 5세기에 이르러서는 기독교 윤리의 실천보다는 교리적인 내용의 전달이 세례준비자들 교육에 조금 더 강조되는 현상을 보였다.

초대교회가 디다케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을 가르쳤다면, 그리스도인이려면 꼭 알아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이론적인 것들은 신조(Creeds)에 대한 설명과 구약성경 강해를 통해 가르쳤다. 특히, 성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순수한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이자 이단의 사상에 대항하는 표로 여겼는데 이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주로 다음 단계인 사순절 기간 동안의 세례적임자(Petitioners) 교육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졌다.⁴⁰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후보자들에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구속역사’를 이야기 전달식으로 가르쳤다.⁴¹ 아우구스티누스의 세례후보자 교육 내용 중 특이점이 있다면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의 교회와 사회, 특히, 교육을 받고 있는 세례후보자들에게 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후보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세상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연습할 것을 항상 권면했다.⁴²

V. 세례적임자 (Petitioners)

⁴⁰ J. L., Gonzalez, *The Early Church to the Dawn of the Reformation*, 106-12.

⁴¹ Augustine, "The Catechising of The Uninstructed," in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3. 288-314.

⁴² Augustine, "The Catechising of The Uninstructed," 285-90.

세례적임자는 세례후보자의 과정을 마치고 세례를 받기 위해 별도의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 자들을 말했다. 세례적임자는 자신이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례후보자들 중 삶에 충분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교회는 불러서 평가했다. 교회 앞에서 변화된 삶을 증명할 때 본인의 간증이나 고백보다는 이들의 교회 정착을 돕고 삶을 이끌었던 성도들의 증언이 더욱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었다. 초대교회에서 이 교육은 주로 사순절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이 교육은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는 것까지 계속되었다.⁴³

초대교회에서 세례적임자가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기 위해 교회에서 한 단계 상위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 이상의 많은 변화를 의미했다. 예루살렘의 키릴로스(Cyril of Jerusalem, 313-386)는 세례적임자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 받는 것’으로 묘사했다.⁴⁴ 이는 세례적임자들은 아직 천국 군대의 정규 군인으로 활동할 수는 없었지만, 세례후보자들과는 달리 의의 갑옷으로 무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한다.

키릴로스는 세례적임자들을 성도(*Πιστος*)라고 부르며 세례후보자들과는 확실히 신분이 구별됨을 강조했다.⁴⁵ 또한 그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믿음의 횃불에 불을 점화한 자들이니, 그 횃불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서의 횃불은 믿음의 조명을 상징했는데, 세례적임자들이 세례후보자 시절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조명’을 말하는 것으로 이전까지 닫혀 있었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드디어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

43 Lawrence D. Folkemer, “A Study of the Catechumenate,” 246-47.

44 F. L. Cross, “The Procatechesis,” in *St. Cyril of Jerusalem’s Lectures on the Christian Sacraments* (New York : st.Valdimir’s Seminary Press, 1997), 1. Cf., Schaff, P., *The Catechetical Lectures of S. Cyril Archbishop of Jerusalem*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1989), xvi.

45 Cyril of Jerusalem, “Catechetical lectures,” in Schaff, P. & Wace, H., e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 7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7.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⁴⁶

1. 세례적임자교육의 과정과 내용

세례적임자 교육은 주로 사순절 기간에 집중적인 강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례적임자들은 처음으로 사도신경을 받았으며, 받은 사도신경을 한 구절씩 집중적으로 배웠다. 그들은 반복하여 사도신경을 읽었고, 마지막에는 암송을 통해 신앙을 고백했다. 이와 함께 주기도문도 교육 내용에 포함되었는데 이 과정은 주로 교육의 제일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기도문 강해는 세례 후 교육으로 미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아 양자가 되지 않은 자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읽기와 암송을 겸하는 사도신경 교육과는 달리, 주기도문은 내용을 설명해주는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는 혹시 모를 교리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 주기도문 교육은 세례 받기 8일 전부터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⁴⁷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세례적임자 교육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독교 윤리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윤리를 말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빛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나타나야 할 것을 강조했다. 클레멘트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로 묘사했다. 반면에 세례적임자들을 포함한 성도들을 가르침을 따르는 어린이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교리교사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종’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그는 기독교 교사의 역할은 도덕적인 삶을 통해 세례적임자들의 모범이 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⁴⁸ 클레멘트의 세례적임자 교육의 특이점은 하루 일과를 통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⁴⁶ Cyril of Jerusalem, “Catechetical lectures,” in Schaff, P. & Wace, H., ed., 6-42.

⁴⁷ Lawrence D. Folkemer, “A Study of the Catechumenate,” 251.

⁴⁸ Clement of Alexandria, *Christ The Educator* (Baltimo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4), 3-89.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는 저녁 식사 시간의 식탁 예절부터 시작해서 잠자리 예절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 그는 부부간의 성관계의 문제를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에서 풀어 설명했다. 이어서 아침에 옷을 입는 것과 오후의 일상적인 생활들을 다루는데, 운동하는 것과 심지어 목욕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상황묘사를 통해 세례적임자들이 이전의 이방 문화를 완전히 벗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권면한 것이다.⁴⁹

예루살렘 키릴로스(Cyril of Jerusalem)도 세례적임자의 변화된 영적 상태를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 진리를 공부하는 것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공사에서 기초가 중요한 것 을 들어 교리공부에서의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키릴로스의 세례적임자교육 내용 중 특이한 점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친분이 없는 자들(unacquainted men)과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인데, 이는 아직 교리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세례적임자들이 왜곡된 내용의 질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신앙의 혼동에 빠질 수 있다는 염려에서 나온 방침이었다.⁵⁰ 키릴로스는 세례적임자들에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용했던 신조인 예루살렘 신조(the Jerusalem Creed)를 강해했는데, 여기에서도 성경강해와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풀어가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기독교 교리의 모든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사상은 무의미함을 세례적임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¹

닛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335-395)가 세례적임자 교육을 위해 작성한 교리교육용 교재는 『대교리교육서』(The Great Catechism)다. 그레고리는 이 책이 세례적임자들을 가르치는 교리교사를 위한 참고서임을 서문에서 분명히 밝히면서 세례적임자들을 가르치는 교리교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⁵² 이와 함께 이 책은 당시 사회에 만연하면서

49 유재국, 『교리교육사』 (서울: 가톨릭교리신학원, 1990), 97.

50 유재국, 『교리교육사』, 1-4.

51 Cross, "The Procatechesis," 23-24.

교회내에서까지 교리적 혼동을 초래한 유대주의(Judaism)와 헬레니즘(Hellenism)에 대항하여 기독교 교리를 명확히 정리하고 설명하려는 변증적인 목적 또한 있었다.⁵³

크리소스토무스(Chrysostom, 347-407)는 주로 설교를 통해 교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더욱 강조했다.⁵⁴ 세례적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의 수업 진행 특징은 첫번째와 두번째 수업 사이에 의도적으로 10일의 간격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는 세례적임자들이 이 10일의 시간 동안 첫 강의에서 지적 받은 나쁜 습관들을 실제로 고쳐 오길 기대한 것이다. 기독교 윤리의 실천에 엄격했던 그는 세례적임자들이 두번째 수업에 참석할 때 변화된 모습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심하게 징계 하기도 했다.⁵⁵

그는 세례적임자들에게 세례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하면서 세례 받기를 주저하거나 세례 받는 시기를 미루는 것을 경건치 못한 행동으로 경고했다.⁵⁶ 그 이유는 당시 교회 내에서 세례 받는 시기를 최대한 뒤로 연기하기 위해 세례후보자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세례적임자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⁵⁷ 많은 이들이 세례 받는 시기를 뒤로 미룬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세례적임자 과정 자체가 상당히 엄격하고 고된 훈련의 과정이었기 때문이었다. 두번째는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전에 즐기던 세속적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 죄의 길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당시의 현상들에 대해 크리소스토무스는 ‘세례를

52 Gregory of Nyssa, "The Great Catechism," in Schaff, P. & Wace, H., e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 5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473.

53 Gregory of Nyssa, "The Great Catechism," 473-74.

54 Paul W. Harkins, "St. John Chrysostom: Baptismal Instruction", in *Ancient Christian Writers*, vol. 31 (New York: Newman Press, 1963), 5-6.

55 Chrysostom, "Baptismal Instructions," in Harkins, P. W., ed., *Ancient Christian Writers*, Vol. 31 (New York : Newman Press, 1963), 146.

56 Chrysostom, "Baptismal Instructions," 132-35.

57 Philip S., "Chrysostom: Homilie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 11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Marketing, 2012), 9-10.

연기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세례가 연기되었다고 해서 그 세례의 효과와 은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례를 연기한 자들은 세례를 통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된다.⁵⁸ 따라서 '세례를 연기하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짓이다.'⁵⁹라고 말하며 세례를 연기한 이들을 질책했다. 또한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 죄인의 길로 빠질까 두려워하여 세례를 연기하는 자들에 대해 그는 '세례 후 다시 범죄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힘을 주실 것이며, 만일 다시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⁶⁰고 세례적임자들을 격려하고 북돋았다.⁶¹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354-430)의 세례적임자 교육은 그가 남긴 *The Creed*(신조)에 잘 나와있으며, 이 책을 통해 그는 사도신경을 가르쳤다.⁶² 그는 사도신경을 설명할 때 단어 하나 하나를 순서별로 자세히 풀어가며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세례적임자들에게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다. 이것을 항상 읽고 묵상해야 할 것이라고 권면했다. 그는 세례적임자들에게 사도신경을 강해하면서 '의심 없는 믿음'이 중요함을 가장 강조했다. 다시 말해 사도신경을 통해 배우는 내용들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있다 할 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는 만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해하려고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⁶³

58 Chrysostom, "Baptismal Instructions," 132-35.

59 Chrysostom, "Homilies on St. John,"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 14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Marketing, 2012), 63.

60 Chrysostom, "The Acts of the Apostles,"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 11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Marketing, 2012), 9.

61 Chrysostom, "Baptismal Instructions," in Harkins, P. W., ed., 291.

62 Augustine, "The Creed," in *The Father of the Church*, vol. 27 (Washingt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5), 286.

VI. 신 수세자(the newly-baptised) 교육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세례적임자들을 집중훈련 시키고, 문답을 통해 신앙고백을 받으면,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부활절 주일 새벽에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또 한번의 집중 훈련이 행해졌는데, 이 훈련은 주로 세례를 받은 그 부활주간 동안 이루어졌다. 신 수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훈련이 일주일 동안 행해진 것은 당시 실제 7일간 행하는 결혼축제의 풍습을 따라 교육을 실행했기 때문이었다.⁶⁴ 이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을 더 이상 배우는 자로만 대하지 않았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껏 세례를 준비하면서 높은 성취도를 보인 이들에 대해서는 이후 교리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권면하기까지 했다.

1. 신 수세자(the ewly-baptised) 교육 내용

히폴리투스는 이들에게 성찬을 가르쳤다. 그는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금식을 해야 함을 지시했다. 히폴리투스에 의하면 3세기 로마교회의 성찬예식은 세례 받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예식이었다. 또한 이 성찬예식은 일상생활의 실천규율로 까지 확대 적용되어, 주일날 교회에서 성찬예식 중 사용하고 남은 떡을 성도들이 각 가정별로 가져가서 매일 가족 성찬예식을 행하기도 했다.⁶⁵

신 수세자들에게 키릴로스가 가르친 것도 세례와 함께 성찬이었다.⁶⁶ 또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새 삶을 위해 포기해야

⁶³ Augustine, "The Creed," 289-94.

⁶⁴ Chrysostom, "Baptismal Instructions," 102-03.

⁶⁵ Hippolytus, *Apostolic Tradition*, Harold W. Attridge, ed., 136-37.

⁶⁶ F. L. Cross, *St. Cyril of Jerusalem's Lectures on the Christian Sacraments* (New York: St. Valdimir's Seminary Press, 1997), 22.

할 것들이 있음을 권면했다. 이 ‘포기의식’은 신 수세자들에게 처음으로 강의된 내용이 아니라 세례적임자 교육에서 언급한 내용의 반복 설명이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그는 신 수세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⁶⁷

크리스토폴로무스는 신 수세자들을 위한 첫 강연에서 그들을 ‘새로운 별들’로 묘사했다. 또한 그들이 ‘새롭게 조명된 것’(newly-illuminated)을 축하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세례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들에 대해 신 수세자들에게 설명해주었다.⁶⁸ 이 강연에서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다시 죄의 길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신 수세자들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직접 선 보이기 위해 타 지역의 수도사를 초청하여 특별 강연을 하기도 했으며, ‘하루생활계획표’(Daily Program)를 만들어 매 순간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기도 했다.⁶⁹

아우구스티누스가 신 수세자들에게 행한 교육의 핵심은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두 가지를 꼭 인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떠한 내용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해한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를 받은 성도는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함을 강조했다.⁷⁰

Ⅶ. 초대교회 교회교육의 함의점

67 Cyril, “Mystagogical Catechesis,” in Cross, *St. Cyril of Jerusalem’s Lectures on the Christian Sacraments*, 53-59.

68 Chrysostom, “Baptismal Instructions,” 56-57.

69 Chrysostom, “Baptismal Instructions,” 119-27.

70 Augustine, “Christian Instruction,” in *The Father of the Church*, Vol. 2 (Washingt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5), 27.

1. 교회 문턱을 높이라

초대교회는 세례준비자를 교육할 때 삶의 변화를 가장 강조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교회교육의 최대 목표로 삼았다. 세례후보자로 2-3년의 훈련과정을 거쳐 세례적임자가 될 때에도 가장 중요한 점검요인은 변화된 삶의 객관적인 증거였고, 이를 증명해 줄 성도들의 실질적인 증언이 세례적임자 후보자의 개인적인 간증과 고백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⁷¹ 현재 한국 장로교의 세례준비자 교육에서 학습문답은 14세 이상의 원입인으로 6개월 이상 공예배에 참석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세례문답은 학습인으로 6개월이 경과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⁷² 이 기준을 따르면 원입교인으로 예배에 출석한 자는 약 1년이 지나면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 기간만 보면 초대교회의 2-3년의 준비기간보단 짧지만 세례를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실제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을 준비하는 과정을 조사해보면 보통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씩 4주를 공부하고 학습과 세례 문답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약 2~4시간 공부하고 학습과 세례 문답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실제 학습과 세례문답에서 점검하는 중점 사항은 삼위 하나님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가 하는 점이다.⁷³ 물론 이러한 신앙고백은 세례의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상황과 비교할 때 현재의 학습과 세례 교육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교육과 점검은 많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71 Folkemer, "A Study of the Catechumenate," 246-47.

72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출판국, 2015), 263.

73 Du Sung Chung, *The Importance of Catechism for the Presbyterian Church in South Korea* (Ph.D Thesis at University of Wales Trinity Saint David, 2014), 34-40. 본 결과는 필자가 직접 설문조사하고 분석한 것으로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자료로 사용된 것임을 밝힌다.

현재 한국 교회가 세례준비자 교육을 강화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개 교회의 양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례 준비의 과정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교회를 찾은 새가족이 부담없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다. 물론 많은 교회에서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을 위한 공부 이전에 새신자를 위한 성경공부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된다.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12주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새가족을 위한 성경공부는 비록 그 교재의 내용은 기독교 기초 교리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 진행되는 과정은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점 보다는 새가족들이 그 교회에 정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⁷⁴

개 교회 성장에 초점을 두면서 신실한 신자 생산을 세례준비자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지 못하는 현대의 한국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이 아닌가 한다. 비록 교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속해 있다는 공교회 의식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⁷⁵ 모든 교회가 이러한 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면 현대의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당당히 교회의 문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세례와 함께 성찬의 의미를 가르치라.

성도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다.⁷⁶ 그리고 실제 많은 성도들이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

74 Du Sung Chung, *The Importance of Catechism for the Presbyterian Church in South Korea*, 34-40.

75 이성호, “교회쇠퇴시대, 교회는 어떠한 목회자를 찾아야 하는가?” 황대우 외 11, 『담임목사가 되기 전에 알아야 할 7가지』 (서울: 세움북스, 2016), 16-22.

76 WLC 154; WSC 88.

또한 주일 공예배의 기도는 물론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한다. 그러나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 말씀과 기도와 같은 은혜의 체험을 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별로 없다. 은혜의 방편인 성례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성례가 은혜의 방편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이 성례를 통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너무 간소화된 학습과 세례 교육의 폐단이기도 하다.

초대교회에서의 세례식은 교회의 연 중 가장 큰 행사였다. 이 날은 교회의 가장 큰 축제의 날이었다. 세례를 받을 이들은 이 날만을 기다리며 2-3년을 준비했다. 부활절 새벽에 드디어 세례를 받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리기 시작할 때 이들이 체험하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때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도 자신들이 세례 받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며 세례식에 함께 참여했다. 여기서의 세례 참여는 세례를 받는 자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세례식은 한 교회가 한 신앙을 고백함을 선언하는 거룩한 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례를 받는 자는 물론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함께 천국 백성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성찬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예식이다.⁷⁷ 초대 교회는 이러한 성찬을 가르쳤다. 그렇기에 초대교회의 성찬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 특히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 날 첫 성찬에 참여할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대 교회는 언약의 백성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세례와 함께 성찬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천국 시민임을 나타내 주는 언약의 인침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⁷⁸ 또한 믿음이

77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7), 521-26.

약하거나 실족한 이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⁷⁹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교회의 일로 제정되어 있다. 이는 결코 개인적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교회의 일로 행해지는 성찬은 성도를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 준다. 따라서 교회는 성찬이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써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임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임을 또한 가르쳐야 한다.⁸⁰ 결국 세례와 성찬의 참 의미를 성실하게 가르침으로 말씀과 기도만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도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며, 실제 성례의 장이 은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원입교인, 학습교인, 세례교인의 정체성을 가르치라

보통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인, 학습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⁸¹ 이 중 원입인과 학습인을 초대교회의 세례준비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각각 세례후보자 와 세례적임자로 볼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현대 교회에서 처음 교회에 받을 들여놓고 원입교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을 초대교회의 상황에 비교한다면, 엄격한 교회 등록 심사를 거쳐 세례후보자가 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세례후보자들은 이전의 이방 문화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 것을 각오하고 이것을 교회 앞에 약속한 자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는 교회의 문턱은 많이 높였지만, 이 문턱을 넘어서 교회로 들어온 이들의 숭고한 결단과 각오를 높이 평가해주었다. 이를 현대의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비록 아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원입교인이라도 그들이 교회당에 들어 선 것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끊기로 결단한 것이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깊은 고민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을 교회가 높이 평가하고 격려해주어

78 WLC 176.

79 WLC 172.

80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헌법』, 240.

81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헌법』, 263.

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했듯이 현대의 교회도 원입교인이 힘든 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에는 그들을 향한 성령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꼭 알려줄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의 학습교인은 새신자 중에서 출석하는 교회에 정착하기로 확실히 마음 먹은 사람 정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학습교인에 해당하는 초대교회 세례적임자는 원입교인에 해당하는 세례후보자 및 세례교인에 해당하는 성도와 확연히 구별되었다.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조명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세례후보자들과 구분되었다. 그러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은 아니며, 성령으로 완전히 조명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성도들과도 구분되었다. 특히, 초대교회가 세례적임자들에게 그들의 변화된 신분과 위치를 각인 시키며, 세례후보자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킨 것은 이들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초대교회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인 세례적임자들에게 세례후보자와는 다른 위치를 부여하여 그 의미를 부각시킨 것은 세례의 가치와 기독교 교리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현대교회는 세례를 준비하는 학습교인들에게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분을 부여 받은 귀중한 새 그룹의 사람들임을 말해주어야 한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조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기에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이다.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학습교인들에게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를 알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습교인들도 그리스도의 군사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이며, 영적인 전투에 나가 싸우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학습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리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대변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세례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서 학습교인들을 그들의 새로운 신분에 맞게 정당하게 대우해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례교인들이 학습교인들을 격려하고 북돋아 주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교인들이 세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는 것이 세례교인들의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초대교회 세례교육은 기독교의 변증이자 전도와 선교 그 자체였다.

이상규는 초대교회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박해는 물론 복음을 공개적으로 증거 할 수 없는 제한된 환경가운데서도 지리적인 확장과 수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이라고 지적한다. 계속해서 그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이 생명력을 지녔기에 기독교 복음이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말한다.⁸²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새신자와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한 말씀은 바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였다. 성도를 가르칠 때 이 말씀을 강조하며 교회가 기대한 것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 양성이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교육목표는 교회에 순결한 그리스도인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이방 세계에 선했던 그리스도인 상을 드러내는 결과를 동시에 낳았다. 다시 말해 교회가 말씀과 교리를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양성에 주력하면 할수록 성도들

82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서울: SFC, 2016), 234-35.

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강력한 기독교의 변증자 전도와 선교의 귀한 동력이 된 것이다.⁸³

5. 부모를 통한 가정 신앙교육을 강화하라

초대교회의 교회교육은 주로 세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성인 새신자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러한 교육적 열정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교육의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그들은 다름아닌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이었다. 즉, 초대교회 교회교육의 약점은 바로 유아세례를 받은 자녀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교회보다는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부여되었다. 물론 이들은 부모나 본인이 원하면 세례후보자 교육이든 세례적임자 교육이든 어느 교육과정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면사항이다 보니 당연히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하여 유아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제대로 된 교회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초대교회에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초대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비록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기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체계적인 교리교육 없이 기독교인이 된 이들이라 이단 사상의 공격에는 오히려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즉, 교회 내에 유아세례 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교회 전체는 교리적으로 점점 약해져 간 것이었다. 결국 이는 교회가 이단의 공격에 대처할 힘도 점점 잃어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 천년의 역사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이 문제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뤄졌다. 종교개혁자들은 부모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며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만을 넘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목사와 협력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

83 정두성, 『교리교육의 역사』 (서울: 세움북스, 2016), 128-29.

가 있음을 강조했다. 말씀과 교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지만, 구체적인 말씀과 교리가 적용되는 장은 가정이고 그 책임과 의무는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하여 가르친 것이다.⁸⁴

현대의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가정 신앙교육의 약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은 주일학교교육이 자녀들만이 아니라 부모교육까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교육은 크게 두 가지면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그 첫번째는 부모 스스로가 매주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는지를 자녀에게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일학교에서 자녀들이 들은 말씀의 핵심을 전달받아 한 주간 자녀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자녀와 함께 이야기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이 주보나 이메일을 통해 부모에게 설교의 핵심과 적용점을 성실히 전달해 주는 수고가 병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⁸⁵

6. 사순절의 교육적 요소를 회복하라

초대교회 신앙교육의 중심에는 사순절이 있었다. 사순절에 행해진 세례자 준비를 위한 집중 신앙교육은 교회의 연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이 기간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날 생명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고, 부활절에 있는 세례와 성찬의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 사순절의 교육적 전통은 중세를 거치면서 내용 없는 의식적 기간으로 전락했고, 이를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판단해서 폐지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안타까운 현상이 바로 사순절의 교육적인 요소까지 같이 묻혀버린 것이다.

현대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사순절의 교육적인 요소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순절을 지키는 의식을 부활하자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⁸⁴ 정두성, 『교리교육의 역사』, 172-73.

⁸⁵ 정두성, '교리문답을 활용하는 가정예배,' 장대선, 『교회를 세우는 가정예배』 (서울: 고백과문답, 2017), 130-37.

비록 40일간 학습교인을 집중해서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지라도, 이 기간동안 새신자를 포함한 전 성도들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야 한다. 특히 부활절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좀 더 심도 깊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새신자들은 세례와 성찬을 더욱 사모하면서 준비하게 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감격을 회복하고 고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새신자와 새가족을 구분하여 지도하라

초대교회의 세례자중심의 신앙교육은 그 특성상 새신자를 양육하는 교육이었다. 지역교회를 처음 찾은 이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출신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원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현대 한국교회에는 전도와 인도를 받아 지역 교회에 첫 발을 들이는 이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따라서 현대 교회는 새신자뿐 아니라 새가족으로 영입되는 성도들도 따로 구분하여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VIII. 나가는 말

초대교회의 세례준비 교육은 교회교육의 핵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는 세례준비교육을 통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게 했다. 그 과정은 길었고 또 엄격했다. 개종자들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은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변했고, 그것은 성도들의 증언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이 교육의 과정을 통해 개종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받게 될 세례는 물론 성찬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연습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훈련된 자들의 모임이었

기에 이 공동체의 모습은 그 자체로 기독교의 변증이었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었다. 반면에 초대교회는 성인 개종자들의 세례 준비교육에 집중한 나머지 교회 내의 다음세대 교육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세 신학과 신앙의 오류를 개혁하려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전락한 사순절을 폐지하면서 초대교회 사순절의 교육적인 요소를 살려내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한국교회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으며 자기를 반성하고 수정하여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본다. 이러한 때에 초대교회 세례자 중심의 교회교육의 포괄적인 정보가 한국교회에 주는 함의점은 상당히 시의적절 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초대교회 교부들이 세례준비자들과 성도들을 가르치며 작성한 교육적 사료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심도 깊게 진행된다면 종교개혁시기의 교리교육서들과 함께 한국교회의 교리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더욱 풍성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교회 신앙교육에 대한 추가 연구들과 이를 한국 교회에 적용하려는 일련의 노력을 통해 한국 교회의 교회교육이 더욱 균형 있고 체계화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Abstract]**Church Education for Catechumen in the Early Church
and the Implication for the Korean Contemporary
Church**

Du Sung Chung (Korean Theological Seminary)

The Education for Catechumen in the early church was the core of church education. The Church trained and prepared them to be real church members through the special educational approach, especially for the Baptism. The course was rather long and strict. During this course all catechumens were educated to establish the identity about their new status as Christians. The early church built on this training system for not only the apology of Christianity but also the fruits of the work of mission of church. On the other hands there was a tendency of lacking in the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in the early church. Furthermore, it was also true that the reformers failed to succeed in taking advantage of the educational aspect of Lent in the early church by demolishing the Lent which was spoiled into formalism and ritualism.

Therefore, it is thought to be valuable to think of the implication of the catechetical education in the early church for the contemporary church in South Korea. As the early church did, the Korean Church needs to teach catechumens to change

their previous life style into that of Christians through the examples of actual lives of church members. All catechumens as well as church members have to be taught to taste the heavenly feast in their church through the education of the Sacrament and the Baptism. Our churches have a necessity to encourage their catechumens to get strong identity of their new status as God's Children. Christian family education should be reinforced for those who have infant baptism in order to avoid the failure in the early church. And finally, the Korean contemporary church needs to restore the educational aspect of the Lent in the early church which was ignored by the Reformers.

Key Words: Baptism, Early Church, Catechumen, Petitioners, Church, Church Education

[참고문헌]

1차 자료들

- Athenagora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in *Ante-Nicene Fathers*, Vol.2.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Augustine. "The Catechising of the Uninstructed." in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 First Series, Vol. 3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93.
- _____. "Christian Instruction," in *The Father of the Church*, Vol. 2. Washingt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5.
- _____. "The Creed," in *The Father of the Church*, Vol. 27. Washingt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5.
- Chrysostom. "The Acts of the Apostles,"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 11.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Marketing, 2012.
- _____. "Baptismal Instructions," in Harkins, P. W., ed. *Ancient Christian Writers*, Vol. 31. New York: Newman Press, 1963.
- Clement of Alexandria. "The Stromata, or Miscellanies," in A. Roberts & J. Donaldson, ed. *Ante-Nicene Fathers*, Vol.2.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_____. *Christ The Educator*. Baltimo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4.
- Clement of Rome. "The First Epistle of Clement," chapter 21, in Roberts, A & Donaldson, J., ed. *Ante-Nicene Fathers*, Vol. 9,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Cyprian. "The Epistles of Cyprian," chapter 58:2-6, Roberts, A & Donaldson, J., eds. *Ante-Nicene Fathers*, Vol. 5,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_____. “The Treaties of Cyprian,” in Roberts, A & Donaldson, J., ed. *Ante-Nicene Fathers*, Vol. 5.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Cyril of Jerusalem. “Catechetical lectures,” in Schaff, P. & Wace, H., e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 7.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_____. “Procatechesis,” in Schaff, P. & Wace, H., e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 7.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Gregory of Nyssa. “The Great Catechism,” in Schaff, P. & Wace, H., e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 5.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Hermas. “The Pastor of Hermas,” in A. Roberts & J. Donaldson, ed. *Ante-Nicene Fathers*, Vol.2.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Hippolytus. *Apostolic Tradition*, Harold W. Attridge.,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 Irenaeus, “Against Heresies,” in A. Roberts & J. Donaldson, ed. *Ante-Nicene Fathers*, Vol.1.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Lactantius. “The Divine Institutes,” Book 6, chapter 19, in A. Roberts & J. Donaldson, ed. *Ante-Nicene Fathers*, Vol.7.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Martyr, Justin. “The First Apology,” in A. Roberts & J. Donaldson, ed. *Ante-Nicene Fathers*, Vol.1.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Origen. “Origen against Celsus,” in Roberts, A & Donaldson, J., ed. *Ante-Nicene Fathers*, Vol. 4.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Tertullian. "On Baptism," chapter 16, in A. Roberts & J. Donaldson, ed. *Ante-Nicene Fathers*, Vol.3.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_____. "De Corona." In Roberts, A & Donaldson J., ed. *Ante-Nicene Fathers*, Vol.3.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_____. "On Prescription Against Heretics," in Roberts, A & Donaldson, J., ed. *Ante-Nicene Fathers*, Vol. 3.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_____. "Against Marcion," in Roberts, A & Donaldson, J., ed. *Ante-Nicene Fathers*, Vol. 3.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_____. "The Prescription against Heretics," in Roberts, A & Donaldson, J., ed. *Ante-Nicene Fathers*, Vol. 3.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_____. "On Repentance," in Roberts, A & Donaldson, J., ed. *Ante-Nicene Fathers*, Vol. 3.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2012.
- "The Didache" in Francis X. Glimm, trans. *The Apostolic Fathers*, Vol. 1, Washingt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3.

영문 자료들

- Aland, K. *Did the Early Church Baptize Infant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3.
- Arnold, Clinton E. "Early Church Catechesis and New Christian's Classes in Contemporary Evangelism," in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Vol. 47, No.1. March, 2004:

39-54.

- Cross, F. L. "The Procatechesis," in *St. Cyril of Jerusalem's Lectures on the Christian Sacraments*. New York: st.Valdimir's Seminary Press, 1997.
- Duchesne, L. *Christian Worship: Its Origin and Evolution*. 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1912.
- Dujarer, Michel *A History of the Catechumenate. The First Six Centuries*. New York: Sadlier, 1979.
- Du Sung Chung. *The Importance of Catechism for the Presbyterian Church in South Korea*. Ph.D Thesis at University of Wales Trinity Saint David, 2014.
- Ferguson, Everett. "Inscription and the Origin of Infant Baptism", E. Ferguson, ed. *Conversion, Catechumenate and Baptism in the Early Church*.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3.
- Folkemer, L. D. "A Study of the Catechumenate," in Everett F., ed. *Conversion, Catechumenate, and Baptism in the Early Church*. New York & London: Gerland Publishing, Inc., 1993.
- Gifford, Edwin H. "The Catechetical Lectures of S. Cyril," in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 7,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89.
- Gonzalez, J. L. *The Early Church to the Dawn of the Reformation*, in *The story of Christianity*. Vol. 1. New York: Harper Collins Pub., 1984.
- Pelikan, Jaroslav. *Credo*.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3.
- Schaff, P. *The Catechetical Lectures of S. Cyril Archbishop of Jerusalem*.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89.

한글 자료들

- 길성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5.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출판국, 2015.
- 매티슨, 키이스 A. 『성찬의 신비』. 이신열 역. 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15.
- 바빙크, 헤르만. 『개혁교의학』. 박태현 역. 4권.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7.
-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서울: SFC, 2016.
- 이성호. “교회쇠퇴시대, 교회는 어떠한 목회자를 찾아야 하는가?” 황대우 외 11, 『담임목사가 되기전에 알아야 할 7가지』. 서울: 세움북스, 2016.
- 정두성. 『교리교육의 역사』. 서울: 세움북스, 2016.
- _____. ‘교리문답을 활용하는 가정예배,’ 장대선. 『교회를 세우는 가정예배』. 서울: 고백과문답, 2017. 현유광. 『교회문턱』. 서울: 생명의 양식, 2016.
- 핸드릭슨, 윌리엄. 『갈라디아서』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5), 210.
- 유재국. 『교리교육사』. 서울: 카톨릭교리신학원, 1990.
- 후크마, 앤서니. 『개혁주의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